

지혜의 보고 佛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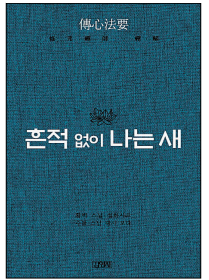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1 ~ 10/7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6	흔적 없이 나는 새(전심법요)	수불	김영사
2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제비 산행수기 정호 양산	모과나무	7	사랑이 온대화와 자유의 힘(그림판)	이영철	해조음
3	이것이 깨달음이다	백창우	김영사	8	트라우마 사용설명서	마크 엘스타인	불광출판사
4	사찰의 비밀	자현	담앤북스	8	불교 인식론과 논리학	키츠라 쇼류	운주사
5	뉘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응	용화	10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법보신문 연재 기문)	김재일	책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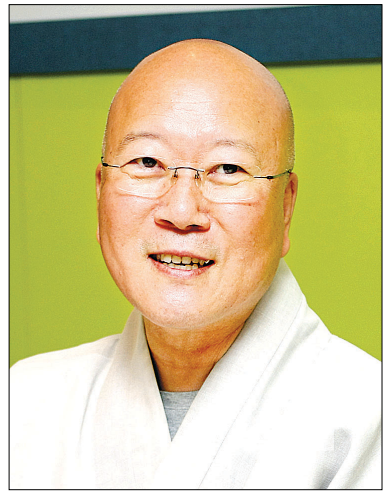
“이 한마음이 바로 부처일 뿐...”

흔적 없이 나는 새- 전심법요 수불선사 선해

수불 스님 선해 | 김영사 펴냄 | 2만5천원



“허공을 나는 새의 흔적이 없듯이, 붉은 화로에 떨어지는 흰 눈의 자취가 없는 것처럼, 일도청류(一道清流)가 황벽 스님의 자비에 대한 후학의 도리일 것이다.” 황벽 스님(?~850)은 당대(唐代) 육조-남유-마조-백장-황벽-임제로 이어지는 조사선의 황금기를 함께 했다. 책은 황벽 스님의 가르침을 담은 <전심법요(傳心法要)>를 부산 범어사 주지이자, 안국선원과 동국대학교 국제선센터의 선원장인 수불 스님이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새로 풀어 쓴 것이다. 이 책의 ‘선해(禪解)’는 수불 스님이 2010년 서울 안국선원에서 법문한 내용이며, 2013년 현대불교 신문이 연재한 바 있다.



수불 스님

‘일심법’ 가장 논리적으로 설한

조사어록의 백미 <전심법요>

현대인 알기 쉽게 풀어내

‘돈오’ 후 ‘완성’으로 가는 길 안내

“선대의 선택 믿고 포기하지 말 것”

단명료하게 불법을 실천해 보임으로써, 선의 대중화를 이루었다. 이 가풍은 임제 스님이 스승인 황벽 스님의 불법을 “간단하구나.” 하고 평한데서 잘 드러난다. 황벽 선사 역시 <전심법요>에서 어려운 계승이 아니라 듣는 즉시 곧이곧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명적절하게 대답하고 있다. 구구절절한 설명 없이 곧장 가르침을 일러준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공민왕 때 문헌으로 남겨진 이래 1908년 부산 범어사에서 간행된 <선문촬요(禪門撮要)>에도 실려 있다.

<전심법요>는 배후 자신이 묻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직접 집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반면, ‘완릉록’은 “배상공이 물었다.”하고 삼인칭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황벽 스님의 어느 제자가 후에 편집한 것으로 추측된다. 두 책의 내용 중 일부가 중복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완릉록’의 17장부터는 원래 본에는 없던 행록(行錄)으로서, 11세기에 원제종에서 종지행통을 확고히 하기 위해 편(사거여록)을 펴낼 때 추가된 것이다.

<흔적 없이 나는 새>는 ‘전심법요’와 ‘완릉록’, ‘행록’까지 총 44개의 폭지로 구성되어 있다. 뜻에 따라 원문을 나누고 번역을 하고 해설을 함께 배치하여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문장의 뜻과 깊은 선의 종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황벽

스님의 <전심법요>가 간명적절한 언어로 설법하고 있으나 1200년 전의 언어인 만큼 수불 스님의 <흔적 없이 나는 새>는 또 한 번 이 시대의 또 다른 ‘배후’를 위해 어려운 불교 용어를 최소화하고 일반 대중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황벽 스님의 법문을 또 한 번 풀어준다.

<전심법요>에서 황벽 선사는 ‘이 한마음 그대로 부처일 뿐, 부처와 중생이 새삼 다를 바 없음(43쪽)’을 거듭 설하고 있다. <전심법요>는 단순히 스승과 제자 사이의 문답을 넘어서, 한 번 절대를 맛보았지만 아직 상대세계의 분별적 습관으로 절대를 헤아리는 제자에게 눈밝은 스승이 향상일로의 지침을 제시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수행자들이지만 아직 ‘점수’의 입장에 처한 수행자에게 돈수의 길을 제시하는 대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돈오’를 체험했으나 아직 ‘점수’의 입장에 있는 수행자라면 <전심법요>를 통해 많은 의혹을 해소하고 ‘이 한마음이 바로 부처일 뿐, 부처와 중생이 새삼 다를 바 없다’는 황벽 선사의 가르침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다.

간화선 지도와 대중화에 매진해 온 수불 스님이 조사어록인 <전심법요>를 선한 까닭은 무엇일까. 수불 스님은 “<전심법요>가 간명적절한 쉬운 언어로 독자의 폭을 넓힌 선어록이기 때문이며, 또한 선 수행의 어려움에 처한 많은 수행자들이 선대의 선택을 믿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라는 불 수 있게 하자는 게 출간의 취지이다.”고 말했다. **박재운 기자 wanhohli@hyunbul.com**

수불 스님은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인 계사년에 출생하여, 이십대 초반에 지명 스님을 은사로 부산 범어사로 출가했다. 1975년에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지유 스님에게 사미계를, 1977년 고암 스님에게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8년 범어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뒤, 1979년부터 1989년까지 노스님 시봉 및 제방 선원에서 수선안거(修禪安居)를 성만했다. 1989년 이래 부산, 서울, 창원의 안국선원에서 7박 8일의 ‘간화선 집중수행’을 250회 이상 개설하여, 출·재가를 막론하고 이만 명 이상의 공부인에게 간화선을 체험케 했다. 이를 통해 간화선이 정착하고, 빠르며, 쉽고, 효과적인 수행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간화선 대중화’를 실천하고 있다. 현재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안국선원 선원장, 동국대학교 국제선센터 선원장,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등의 소임을 맡고 있다.

통합심리학

삶, 종교, 우주에 관한 통합적 접근 제시

통합심리학 분야의 세계적 대가이자 ‘의식 연구 분야의 아인슈타인’으로 평가받는 켄 윌버. 이 책은 그의 핵심 사상을 100여 개의 울 컬러 이미지와 도표, 간결한 설명을 통해 알기 쉽게 정리한 최고의 입문서라 할 만하다. ‘자아실현의 욕구’로 유명한 매슬로, 문화적 발달 단계를 제시한 장 쟈스, ‘스파이럴 다이내믹스’를 주창한 클레어 그레이브스 등의 다양한 인간 발달 모델과 방대한 지식 시스템 속에서 가장 핵심적이며 공통적인 5가지 요소(AQAL)를 뽑아 제시하면서, 인류가 지닌 자원과 능력의 다양한 범위를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재미있는 사례를 통해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건강 비즈니스 생태학 영성 등의 분야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몸 마음 그림자 영을 위한 다양한 ‘1분 모델’까지 제공함으로써 일상에서도 간단하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통합적이고 구체적 비전을 제안한다.

종교적 수행을 통해서나 우연한 기회에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은 그 경험으로 자신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 과연 그러할까? 저명한 학자이자 실천적 영성 지도자인 저자는 다양한 이론과 체험을 바탕으로 종교나 뉴에이지 등 소위 ‘영성’ 분야에 오래 묵은 갖가지 미신들을 단순 명쾌하게 타파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통합적으로 발달”한다는 것은 모든 영역의 능력이 뛰어나게 된다는, 또는 모든 발달 라인이 최고 단계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본 자신의 심리특성도 있는 그대로 잘 이해함으로써 보다 더 통합적인 자기 이미지를 갖고 미래의 발달을 계획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을 ‘라인(line)’이라는 개념과 함께 소개하는 내용에서는 사이비 종교 지도자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들이 흔히 빠져드는 오류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의식의 ‘상태(state)’와 ‘단계(stage)’가 서로 다르다는 설명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영원’의 철학들이 강조해온 ‘수행’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긴다. 의식의 다양한 ‘상태’는 일시적이지만, 의식의 ‘단계’는 올바른 노력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켄 윌버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전/초 오류’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프로이트와 그의 오래된 학자뿐만 아니라 대중매체를 통해 잘못 형성된 ‘영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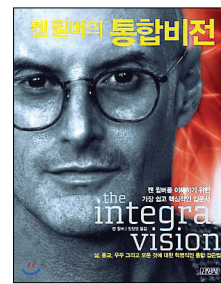
잠재력 일깨울 수 있는 비결은 통합비전

‘차이’의 분별 통해 공통의 근원적 발견

5개 핵심 열쇠인 ‘AQAL’ 독창적 패턴

저자는 “전(前)이성적인 영성과 초(超)이성적인 영성은 둘 다 ‘비(非)이성적’이기 때문에 아주 비슷해 보인다. 훈련 받지 않은 눈에는 심지어 똑같이 보이게까지 한다. 그래서 전/초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 두 영성이 실제로는 극과 극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둘을 혼동하는 것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길과 인류가 겪은 대부분의 비참함을 빚어낸 원인을 혼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통의 원인인 것처럼 보이는 것에서 도망가려는 시도가 실제로는 구원의 길을 등지고 다시 고통의 원인 속으로 들어가는 꼴이 되고 만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통합이론과 훈련을 연구하는 두뇌집단인 통합연구소(Integral Institute)를 설립해 다방면의 전문가들과 30년 이상 공동 연구한 결과를 이 책 속에 담았다. 그의 통합적 관점은 동서양의 종교는 물론 심리학과 철학, 사회학, 인류학, 생태학, 비즈니스, 포스트모더니즘까지 총망라하고 있다.

이 책은 통합적인 접근을 위해 모든 자료를 연결한 ‘AQAL’이라는 독창적인 패턴을 제시한다. ‘모든 4분면(quadrants), 모든 수준(levels), 모든 라인(lines), 모든 상태(states), 모든 타입(types)’이라는 5가지 핵심 요소를 뜻하는 ‘AQAL(아퀼)’은 신화와 종교, 문화, 철학, 과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다각도로 해석하고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실용적 도구이다. ‘AQAL’의 각 요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금껏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묘사해 온 여러 학문과 인간의 의식에 관련된 자료들을 통합적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볼 수 있으며, 인간의 다양한 활동 영역들을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공통의 언어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김주일 기자**



켄 윌버의 통합비전

켄 윌버 지음·정형영 옮김 김영사 펴냄·1만 3500원

부처님의 청정한 계율이 살아있는 도량 ‘영산불교 현지사’, 오탁악세에 준엄한 계율정신의 햇불을 들다

출가자는 음계(淫戒)를 생명처럼 지키고 재가불자들은 오계십선 인륜도덕을 실천해야



대적광전에서 경전을 읽는 스님들

■ 현대사회에서 계율의 중요성

불법은 출가 재가를 떠나서 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출가자는 비구(尼)계를 수지함으로써 비구(尼)가 되고 재가자 또한 삼귀의의 서원과 5계를 수지해야 참다운 불자가 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자가 되는 길은 계문(戒門)을 통해 서입니다. 계의 1차적인 목적은 방비(防非)로서, 그릇된 행위를 막아 악을 그치게 함입니다. 자신의 행보와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극단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는 현대인에게 부처님의 계율은 개인과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입니다. 부처님이 제정하신 계율은 누구나 다 지켜야 할 우주의 이법(理法)입니다. “부처님의 계율은 모든 선법(善法) 좋은 과보를 불러오는 모든 행위의 으뜸이고 이것을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을 악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마침내 해탈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창정도론)

■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물질만능주의 사회

물질적 풍요가 넘치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도덕적 가치와 진리 대신에 감각적 쾌락을 극단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의 파괴, 이혼율과 범죄율의 급증,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겪는 스트레스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할 수 없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과 같은 현대사회를 오탁악세(五濁惡世)라고 했습니다. 이 오탁악세에서 행복을 구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부처님의 가르침, 그 중에서도 특히 부처님이 제정하신 계율을 잘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 예방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청정입니다.

■ 계율이란 - 계율은 방편인 동시에 목표

계율이란 신·구·의(身口意) 삼업으로 불신(不善)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고, 출가자는 재가자는 불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규범의 총체를 말합니다. 자발적으로 지켜야 할 결심의 측면에서는 계(戒)라 하고, 불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무의 측면에서는 율(vinaya)이라고 합니다. 이 둘은 불자에게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양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파티모카(patimokkha-바라제목차pratimoksha)라고 하셨는데 이 말에는 첫문(初門), 열문의 뜻이 있습니다. 팔리어로 포살건도에서 ‘계율은 모든 선법(善法)의 상수(上首-우두머리)’라고 했고 부처



영산불교대학에서의 계율 수업

남께서 말씀하신 계율이 ‘모든 경전 중에서 으뜸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계율은 모든 불자들에게 불신법을 막고 선법을 증장시키는, 행복한 삶과 해탈(涅槃)으로 인도하는 가장 유력한 방편이자 동시에 불법의 목표 자체이기도 합니다.

■ 출가자의 계율에 대해 - ‘청정’의 계율정신 회복해야

“아나타야, 내가 가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대에게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는 부처님의 유언이고 명령입니다.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은 스스로의 수행을 위해서도 불법을 오래도록 머물게 하기 위해서

도 출가수행자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출가자들은 무엇보다도 음계(淫戒)를 생명처럼 수지해야 합니다. 비구계의 첫바라제목차(初)는 음계를 고승이나 바일제 항목의 가장 많은 계목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음행과 관련된 계입니다. 한국의 출가수행자에게는 음주(飮酒)이 만연되어 있는데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개인 소유물에 있어서 자가용이나 토크 등 분배는 소유물을 추구해서도 안됩니다. 계목(戒目)에 없다고 하더라도 수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언행은 부처님의 계율을 어기는 것입니다.

■ 재가자 - 오계·십선계를 지키고 불효오과와 훼손심보의 죄를 짓지 말아야

가장 기본이 되고 모든 계율의 토대가 되는 계가 바로 5계입니다. 불자들은 불살생, 불투도, 불사용, 불망어, 불음주의 오계를 잘 알고 지켜야 합니다. 부처님의 계율은 금계와 내생의 행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생활지침이며 사회 전체가 도덕적으로 정화되고 향상될 수 있는 윤리규범입니다. 오계의 목적은 악행을 그치게 하는 것이지만 불자라면 여기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10선계(신구의 3업으로 선행을 하게 하는 계)입니다. 이 5계10선을 잘 행하는 불자는 당연히 인륜도덕을 잘 지키게 됩니다. 부모님께 신구의 10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최선의 효도이고 나라에 대해 10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충성입니다. 인륜도덕은 유교적 덕목이 이전에 부처님의 계율정신의 자연스런 결과입니다. 또한 불자들은 이타의 보살행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고 특히 불효오과를 짓지 말고 절대 삼보(三寶)를 훼손(毀壞)·파괴하고 비방하는 행위하는 죄업을 범해서는 안됩니다.



현지사 정기법회

자재 만현 큰스님 법회 안내

현지사 춘천본사 정기법회 10월 19일(일) 오전 9시

엄장을 짓어주는 세계유일의 부처님화상에서 불과 이론 큰스님의 사자후를 들어보십시오! 세계 어느 불교에서도 몰랐던 부처님세계와 인간 영혼체에 대한 깊은 비밀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21세기 인류정신을 향도하고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가길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를 만나보십시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저자 자재만현 큰스님의 동영상 법문(252회)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 버스 운행됩니다. 문의 033)243-1787, 1795